

금융교육 후기

— 1회차 —

- ▶ 조이름 : 또똥똥쳐 4총사!
- ▶ 조원 : 이윤성, 이지후, 이환준, 우재준
- ▶ 진행일 : 2026. 1. 10. 토
- ▶ 참여인원 : 4명
- ▶ 교재 : ‘퀸트 할머니의 선물’,
‘알렉스 스콧, 레모네이드의 기적’

〈목 차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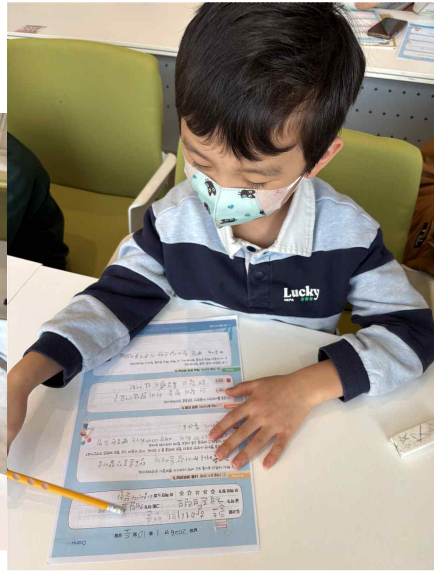
1. 진행 과정
2. 활동 모습
3. 활동 후 느낀점 - 아이들
4. 활동 후 개선할 점 및 다음 차시 계획 - 부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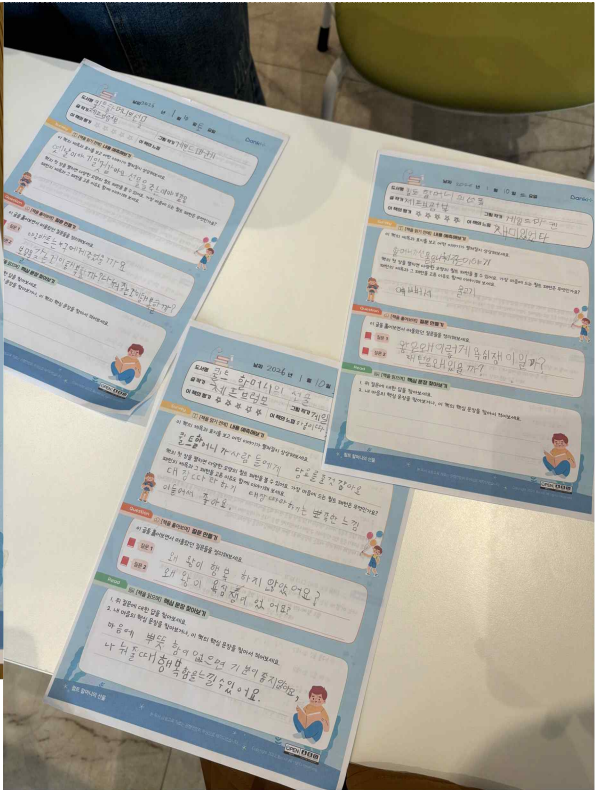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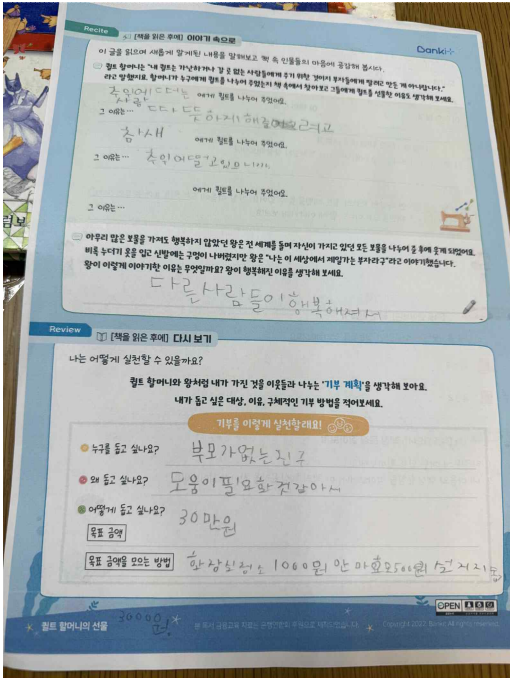
1. 진행 :

- (1) 각자 책을 읽고 활동지 작성. 예측하기
- (2) 훑어보고 질문 만들기
- (3) 정독 후 내용 파악하기
- (4) 활동지 작성하기
- (5) 실천계획 세우기(기부)
- (6) 작성한 활동지를 바탕으로 돌아가며 각자의 생각 말하기
- (7) 활동 후 느낀점 나누기

2. 활동 모습







3. 활동 후 느낀점 - 아이들

(1) 이윤성 : 책이 너무 재미있었고 그림 색깔이 마음에 들었어요. 할머니 퀼트가 정말 예뻐요. 왕이 욕심쟁이였지만 나중에 착하게 선물을 나눠줘서 할머니 퀼트를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, 할머니가 사나운 곰이랑도 친구가 된 것이 멋지고 신기해요. 레모네이드를 팔겠다고 생각한 것이 정말 멋져요. 아픈데도 씩씩하게 멋져요.

(2) 이지후 : 할머니가 퀼트를 엄청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고 왕이 착해진 것 같아요. 왕이 자기 보물들을 누구누구에게 선물했는지 궁금해요. 레모네이드를 팔기로 하고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 최고였어요. 레모네이드를 산 사람들도 마음이 착한 것 같아요.

(3) 이환준 :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을 배웠어요. 용돈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을 꼭 도와주고 싶어요. 곰이랑 새들이 도움을 받고 할머니를 다시 도와준 것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, 레모네이드가 많이 팔려서 기부금이 많이 모여서 좋아요. 아픈 사람들이 많이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,

(4) 우재준 :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주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을 배웠어요, 저도 팡이 접기를 잘해서 친구들에게 나누어줄 때 뿌듯해요. 레모네이드를 사준 사람들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해볼래요,

4. 활동 후 개선할 점 및 다음 차시 계획- 부모

(1) 글의 내용에 숨겨진 교훈을 스스로 찾아내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활동지 작성시에 부모의 도움이 조금 필요했음.

(2) 훑어보기 과정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때에 너무 간단히 훑어보면 질문을 만드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서 다음 차시의 활동에서는 정독과 훑어보기의 적당한 정도를 미리 생각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

각이 들었음.

(3)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중심 내용에 도달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을 겪으므로 각자 정독 후에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확실히 알게된 후에 아이들끼리 토의를 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.

(4) 책을 읽고 나눠주었을 때 부딪힘을 느꼈던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책에서 왕이 걸모습은 거지처럼 되었지만 부자라고 말한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었음.